

그릇된 자를 곧은 자 위에 놓으면, 백성들은 따르지 않는다.

哀公問曰 何爲則民服

孔子對曰 舉直錯諸枉, 則民服, 舉枉錯諸直, 則民不服. 『論語』〈爲政篇〉.

애공문왈 하위즉민복

공자대왈 거직조저왕, 즉민복, 거왕조저직, 즉민불복. 『논어』〈위정 편〉.

노(魯)나라 임금 애공(哀公)이 여쭈었다. “어떻게 하면 백성이 따르겠습니까?”

공자(孔子)께서 대답하셨다. “곧은 이를 천거하여 그릇된 자들 위에 놓으면 백성이 따르고, 그릇된 자를 천거하여 곧은 이의 위에 놓으면 백성이 따르지 않습니다.”

* 애공(애공) : 노나라 임금. 성은 흐(姬), 이름은 정(蔣). 정공(定公)의 아들로 춘추(春秋) 말엽에 27년 간 노나라를 다스렸다. 애공은 시호(溢號).

* 何爲(하위) :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 服(복) : 복종하다. 따르다.

* 舉直(기직) : 곧은 사람을 천거하다. 올바른 이를 기용(舉用)하다.

* 錯諸枉(조저왕) : 错는 措(조)와 통하여 ‘놓다’, ‘두다’의 뜻. 諸는 之於가 합친 조사. 枇은 구부리진 사람, 그릇된 자. 따라서 ‘그릇된 자를 위에 놓다’의 뜻.



인경조

前 코오롱그룹 부회장
前 코오롱건설 부회장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겨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다. 여기서 백성이 따른다는 말은 당시의 표현이고, 현대에 와서는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의 정책에 순응한다는 말일 것이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정부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지 않았다. 아무리 권력이 집중되어 있던 당시의 정치에서도 백성의 신뢰를 받지 못한 때에는 정치가 지리멸렬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웃 제후국에게 영토를 빼앗기거나, 아예 그들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나라가 멸망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하물며 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정치는 더욱 국민의 신뢰가 절대적이라 해

저자(著者)는 코오롱건설 CEO로 재임하던 1999년 1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한국건설경영협회에서 회원사 대표로 참여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협회의 회원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저서(著書)로는 오랜기간 CEO로 재직한 경험을 담은 『논어 경영학』(2009년, 청림출판)이 있다.

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게 아닐까? 공자는 제자 자공이 여쭈었던 ‘훌륭한 정치’에 대해서도 정치의 삼요소를 말하고 있지

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라고 대답하고 있다.

子貢問政，子曰“足食，足兵，民信之矣。”子貢曰：“必不得已而去，於斯三者何先？”
曰“去兵。”子貢曰：“必不得已而去，於斯二者何先？”
曰“去食。自古皆有死，民無信不立。”

『論語』〈顏淵 篇〉

자공문정, 자왈 “족식, 족병, 민신지의.” 자공왈 : “필부득이이거, 어사삼자하선?”
왈 “거병.” 자공왈 : “필부득이이거, 어사이자하선?”
왈 “거식. 자고개유사, 민무신불립.”

『논어』〈안연 편〉

(제자)자공이 정치에 관하여 여쭈어보자 공자께서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비를 풍족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자공이 “부득이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버립니까?”라고 하자 공자께서 “군비를 버린다.”라고 하셨다. 자공이 “부득이 남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버린다면 어느 것을 먼저 버립니까?”라고 하자 공자께서 “식량을 버린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어서 “옛날부터 누구에게나 다 죽음은 있었지만,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국가가 존립할 수 없다”고 하셨다.

오늘날에도 정부의 하는 일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훌륭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요직에 앉혀야 국민들은 그러한 인사를 믿고, 정부가 하는 일을 적극 지지할 것이지만, 만약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정부의 요직에 앉히면 과연 그들을 신뢰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은 오래 전부터 우리의 뇌리에 박혀있지만, 실제로는 인사(人事)가 망사(亡事)를 초래한 사례가 드물지 않게 우리의 정치를 지배해 왔다. 정치는 국민들의 편안함과 그들의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때로는 국민의 희망과는 달리 궤도를 벗어나게 되는 사

례가 가끔은 발생하기도 한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치에 참여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의 안일과 일신상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종종 본다.

국민들이 동의 내지는 수긍하지 않는 인사가 고위급 관료로 임명되는 사례가 빈발하다 보면 국민들은 정부의 정직성에 의문을 갖고 나름대로 살 길을 찾게 마련이다. 작금의 부동산 문제 가이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위정자는 내가 하고 싶어도 심사숙고해서 이런 불행의 씨앗을 사전에 막아야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